

7월 둘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예배를 준비하며 마음을 모으는 7월 둘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을 담았습니다. 이 기도가 회중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작은 다리가 되길 바랍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겹치는 계절에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지 않게 해 달라고, 우리 공동체가 찬양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해 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아래 기도문은 그대로 읽어도 좋고, 우리 교회와 지역의 상황에 맞게 한두 문장을 덧붙여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문장보다 마음이 먼저 주님께 닿기를 소망합니다.

7월 둘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1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시편 136:1)

사랑과 은혜가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7월 둘째 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우리를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선하심을 다시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기쁨의 순간뿐 아니라 눈물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함께하셨음을 믿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감사의 언어가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찬양이 형식이 되지 않게 하소서. 입술의 노래가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일상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태도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따뜻함을 느끼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옵소서. 찬양대와 찬양팀, 음향과 안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회중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둘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2 회개와 새 마음을 구함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9)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내 모습이 드러납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던 교만과, 사랑보다 자존심을 붙잡았던 완고함을 내려놓습니다.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말로는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염려를 선택했습니다. 기도한다면서도 사람의 인정에 더 흔들렸고, 작은 손해 앞에서 쉽게 불평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보며 “내 일이 아니다” 하며 지나쳤던 냉담함도 회개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책망해 주시되 절망으로 몰지 마시고 회복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회개가 눈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관계의 회복과 습관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게 하시고, 끊어야 할 죄의 고리를 말씀으로 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실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의 약함을 정죄하지 않고 기도로 붙들어 주게 하시며,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둘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3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함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105)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찬양의 감동이 잠깐의 분위기로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뿌리내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정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같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닫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상처로 굳어진 마음, 지친 마음, 무뎠던 양심을 만져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변명부터 나오지 않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의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적용할 한 가지를 주님이 구체적으로 보여 주시고, 그 결단을 지킬 힘도 함께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지식에 머물지 않고 삶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담대함을 부어 주옵소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게 하시며, 듣는 우리도 겸손히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둘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4 무더위와 장마 속 교회를 지키는 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1)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여름의 더위와 장마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기후가 거칠어질수록 작은 사고와 질병도 늘어납니다. 주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보호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주님, 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웃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혼자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실제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마음과 손을 움직여 주옵소서. 휴가철 이동과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때이니 교통과 물놀이 가운데도 안전을 지켜 주시고, 갑작스런 사고 소식에 마음이 무너진 이들에게도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보여 주기”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폭염으로 지친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어린 자녀들,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분들에게 체력과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서로 안부를 묻고, 작은 배려로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떤 날씨와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환경이 불편해도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더 크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계절을 따라 흔들리지 않게 굳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둘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5 가정과 일터, 관계의 회복을 위한 기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우리의 쉼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각자의 짐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고민, 경제적 부담, 관계의 갈등, 마음의 공허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로 나아오오니 우리를 쉬게 하옵소서. 주님, 가정 안에 주님의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부부가 서로를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로 보게 하시고, 상처 준 말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게 하옵소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끊겼다면 다시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가정예배와 기도의 습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일터와 학교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성과와 평가의 압박 속에서 정직을 잃지 않게 하시고, 타협의 유혹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지친 이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실직과 불안으로 흔들리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길을 보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관계 속에 주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옵소서. 오해가 쌓인 관계를 풀어 주시고, 화해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먼저 인사하고, 먼저 축복하고,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작은 친절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둘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6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을 위한 간구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12:1)

은혜의 하나님,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단기선교와 봉사가 준비되는 이 시기에 다음 세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프로그램을 소비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비교와 불안에 눌리지 않게 하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며, 예배와 말씀, 공동체를 통해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섬기는 교사와 봉사자들에게는 기쁨과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준비 과정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수고를 주님이 친히 갚아 주옵소서. 재정과 장소, 이동과 안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하옵소서. 형편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교회가 기꺼이 손 내밀어 돕게 하시고,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교회가 따뜻한 울타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둘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7 교회와 나라를 위한 중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3)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개인의 필요를 넘어 교회와 나라를 위해 중보하게 하소서. 분열과 혐오가 쉽게 번지는 시대에 성도들의 마음이 거칠어지지 않게 하시고, 진리 위에서 서로를 품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습관이 아니라 믿음의 외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의 빛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더 많이 말하기보다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논쟁보다 섬김으로 복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의 약함이 드러날 때는 겸손히 회개하고,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허락해 주옵소서. 자신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약한 자의 울음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시고, 안전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더 단단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가 나눔과 돌봄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둘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8 병상과 마음이 무너진 이들을 위한 위로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시편 103:3-4)

치유하시는 하나님,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마음이 무너진 이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 드립니다. 통증과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주님이 아시니, 그들의 호흡 곁에 가까이 계셔서 두려움을 잠재워 주옵소서. 주님, 치료 과정이 길어져 지치고 낙심하는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의사와 간호진에게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치료의 길이 열리게 하시며, 경제적인 부담까지도 주님이 채워 주옵소서. 몸의 병뿐 아니라 우울과 불안, 불면으로 힘겨워하는 이들도 주님이 만져 주시고, 도움을 구할 용기를 주시며, 필요한 상담과 돌봄이 연결되게 하옵소서. 회복의 속도가 더더도 주님이 버리지 않으심을 믿게 하옵소서. 가족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간병과 돌봄으로 지친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서로에게 날카로운 말이 나가지 않게 하시며, 작은 배려로 서로를 세우게 하옵소서. 교회가 기도로 동행하고 실제적인 돌봄을 이어가게 하시며, 외롭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처도 주님께서 만지시면 간증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치유의 소망을 다시 부어 주시고, 슬픔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둘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9 찬양 예배의 파송과 헌신으로 마무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1)

주님, 오후 찬양 예배로 받은 은혜를 예배당 안에만 두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평범한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찬양의 고백을 지키는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유혹 앞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손해처럼 보여도 정직을 택하게 하시며, 누군가를 살리는 한마디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SNS와 비교의 문화 속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 안에서 만족을 배우게 하시고,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용기를 주옵소서. 작은 순종이 쌓여 우리 가정과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헌금과 봉사의 자리에도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억지나 체면이 아니라 감사로 드리게 하시고, 드린 손길이 교회의 필요와 이웃의 눈물에 닿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과 재능을 아끼지 않게 하시며,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오늘 예배에 처음 온 영혼이 있다면 주님을 따르는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오래 믿은 성도는 더 깊은 사랑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하루가 예배로 이어지게 하시고, 다음 주일을 기다리는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